

WTO 월간 동향(15.4.20 ~ 5.15)

※ (출처 : 통상전문지) Washington Trade Daily, Inside US Trade, Bridges Weekly

1. DDA 협상

□ DDA 작업계획 진행현황 평가 및 향후 추진 일정

("State-of-Play", 4.28 WTD / "Revamping the Doha Negotiations", 5.6 WTD / "Doha Work Program Held Up Over U.S.-China Deadlock On Ag Subsidies", 5.8 Inside US Trade / "WTO Chief Urges Members to Redouble Negotiating Efforts as July Deadline Approaches", 5.8 Bridges Weekly)

- WTO 사무총장(DG)은 DDA 작업계획 시한(7월)을 맞추기 위해 'gateway 이슈(농업)' 집중 논의 등 회원국들의 노력을 촉구 (4.27 무역협상위원회, 5.5 일반이사회)

- 협상 의장들은 농업/NAMA/서비스간에도 사실상의 우선순위* (de-facto sequencing)가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우려 표명

* 농업 국내보조 부문의 이견이 NAMA/서비스 논의 진전을 저해

- DG는 향후 Room W 회의(모든 회원국 대상)를 통해 협상 분야간의 수평적 주고받기(horizontal trade-offs)를 추진하겠다는 계획

※ DG가 제시한 DDA 작업계획의 3대 기준(criteria)

- ① 모든 분야를 균형된 방식으로 다루면서 실체적(substantive)·유의미(meaningful)
- ② 나이로비 각료회의에서 협상 타결을 위한 명확한 지침(clear guidance) 제공
- ③ 각료회의 성공을 위한 발판(springboard)

- DDA 작업계획 목표수준을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낮추자는 조정(recalibration) 개념 관련,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견 지속

- (미국) △선진국-개도국 구분 없이 농산물 보조금 지급국들은 모두 무역왜곡적 보조금 규율에 참여 필요, △'08년 협상 텍스트는 최종 합의된 바 없으며 기존 지침(mandate)도 불분명하다고 주장

- (중국) '조정(recalibration)'을 이유로 협상의 목표를 수정하려는 시도 비난, 기존 지침에 어긋나는 어떠한 시도도 수용 불가하다고 강조

- 협상 현황을 감안, 회원국들은 7월까지 대략적 작업계획 합의 후 각료회의(12월)시 구체적 성과(관세감축률 등)를 도출하는 일정이 현실적이라는 전망

□ (농업) 농업 국내보조 부문의 미국-중국간 이견 지속

("Meeting on Domestic Supports", 4.24 WTD / "Doha Work Program Held Up Over U.S.-China Deadlock On Ag Subsidies", 5.8 Inside US Trade / "Draft US Trade Bill Proposes Farm Subsidy Rule Change", 4.24 Bridges Weekly / "New Chinese Farm Subsidy Data Shows Spending Increase", 5.15 Bridges Weekly)

- 미국은 중국의 농업 국내보조 추가 감축을 요구하고 있으나,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당시 합의된 수준에서 추가 양보 불가 입장

* 특히 최소허용보조(de minimis) 관련, 개도국은 생산액의 10% 수준으로 인정 받고 있으나, 중국은 WTO 가입협상에서 이보다 낮은 8.5% 수준으로 합의

- ※ 중국의 2010년 농업 국내보조는 180억불(1230억위안*)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(de minimis에 해당)했으나 허용보조**가 급감하여, 총 보조금 수준은 2008년 대비 감소(중국의 WTO 농업보조 통보 내역)

* 최대 수혜 품목은 쌀(76억위안), 옥수수(60억위안), 밀(58억위안)

** 허용보조는 '08년 대비 600억위안 감소한 780억불(5350억위안) 기록 (농업 관련기관 운영비 등 '기타 일반 서비스' 급감에 기인)

□ (NAMA) WTO 사무총장, 주요 7개국과 평균관세감축방식 논의

("Discussing Average Tariff Cuts", 5.15 WTD)

- 지난 몇 주간 DG 주재로 소규모* 비공개 회의를 개최, DDA 작업 계획 농업/비농산물 시장접근 부문에서 2008년 협상안(농업-구간별 관세감축, NAMA-스위스 공식)을 대체할 평균관세감축방식 논의

* 주요 7개국(미국, EU, 중국, 인도, 브라질, 호주, 일본) 대사와 WTO 그룹 의장(농업 의장, NAMA 의장, 일반이사회 의장)만 참여

- 구체적인 수치를 논의하지는 않았으나 평균감축방식에 대한 각국의 찬반 입장 및 자국 양허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

- (미국, EU, 호주, 일본) 농업/NAMA에서 신축성을 대폭 줄이거나 삭제한 평균감축방식 논의에 개방적이라는 입장

- (중국, 인도) 2008년 협상 텍스트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나, 개도국 신축성(농업 SP/SSM 등)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새로운 아이디어도 논의 가능

* 아울러, 중국·인도·브라질은 농업 국내보조의 목표수준을 결정하지 않고 관세감축을 위한 시장접근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

□ (서비스) DDA 서비스협상 논의

("Doha Services Too", 4.29 WTD / "Lowering Ambition in Services", 5.8 WTD)

- DDA 서비스 협상그룹회의(5.7)에서 미측은 목표수준을 낮추는 대신 회원국들이 서비스 시장접근을 현 수준으로 양허할 것을 제안
- 이에 대해 인도는 서비스 관세의 water 제거를 요구하려면 선진국들도 농업 AMS의 water 제거, 비자제한 철폐 등 상응하는 양보(reciprocal concessions)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

□ (규범) 반덤핑 프렌즈 그룹, DDA 규범협상 진전을 위한 제안서 제출

("A New Antidumping Text", 5.5 WTD)

- 규범 협상그룹회의(5.4)에서 의장은 2011년 협상초안 중 쟁점이 적은(unbracketed) 이슈(특히, 투명성 조항) 중심으로 논의 계획 표명
- '반덤핑 프렌즈 그룹'은 '반덤핑 협상 목표수준 조정(recalibration)을 위한 제안서**'를 제출했으나, 미국·브라질·인도·터키·캐나다 등 농업/NAMA 협상의 진전 없이는 규범협상 진행에 반대 입장

* 한국, 일본(조정국), 칠레, 콜롬비아, 코스타리카, 홍콩, 이스라엘, 노르웨이, 싱가포르, 스위스, 대만, 태국

** '투명성·절차(due process)' 이슈를 DDA 작업계획의 주요 성과물로 제시

2. 발리패키지 이행

□ (TFA) 美 USTR 부대표, 연말까지 TFA 발효에 대해 낙관

("TFA and Its Follow-on", 5.13 WTD / "USTR Calls On Businesses To Help Implement TFA By Nairobi Goal", 5.15 Inside US Trade)

- USTR 부대표는 4개국만 기탁*한 현 상황에도 불구하고 12월 나이로비 각료회의까지 TFA 발효에 대한 낙관적 전망 표명 (5.12 미국상의 주최 컨퍼런스)

* TFA 발효를 위해서는 회원국 2/3(107개국)의 수락서 기탁 필요

- 현재 4개국(미국·싱가폴·홍콩·모리셔스)만 기탁
- EU 기탁시 28개국 추가, 38개 고소득 국가 및 60여개 개도국도 조만간 기탁 예정 → 총 129개국이 금년 내로 수락서 기탁

3. 복수국간 협상

□ (ITA) IT 업계 및 참여 회원국들, ITA 확대협상의 조속한 타결 촉구

("Fearing Collapse, Tech Industry Pushes For ITA Conclusion This Summer", 5.8 Inside US Trade / "ITA-2 Talks", 5.12 WTD /)

- 미국·EU·일본 IT 업계 대표들은 5.4일 주간에 제네바를 방문, ITA 확대협상 참가국들에게 조속한 협상 타결* 촉구

* 7월 중순까지 상품 범위(scope)에 대한 협상을 마치고, 관세 철폐기간(phase-out)에 대한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타결하는 일정 제시

- 5.8(금) 사무총장이 주재한 ITA 확대협상 참가국 회의에서, EU·중국은 기존 합의사항의 수용 촉구, 미국은 ITA 확대협상이 미측 최대 무역현안이라고 하면서 IT 업계의 인내심이 다해가고 있다고 강조

* 업계·회원국들은 필리핀 APEC 통상장관회의(5.23~24), 파리 OECD 통상장관회의(6.3~4)에서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

□ (EGA) 회원국들이 제안한 655개 환경상품 통합리스트 검토

("Another EGA Round", 5.11 WTD / "EGA Members Begin To Pore Through Product List, Gauging Support", 5.15 Inside US Trade / "Environmental Goods Agreement Negotiators Review Product List", 5.15 Bridges Weekly)

- 금번 6차 EGA 협상(5.4~8)시 환경 신뢰성 및 세관이행 기준에 따라 10개 카테고리 655개 품목 검토(회원국은 품목별 지지/반대 의사 1차 표명)

* 미국·EU·중국·일본이 품목 후보 최다 제출, 이스라엘·아이슬란드 미제출
- 중국은 개도국 우대(S&DT) 조항(별도의 개도국용 민감품목 리스트, 장기의 관세철폐 기간 허용 등) 포함 요청

- 차기 회의부터 관세선 분류(ex-outs 도입시 약 40개 품목 증가 예상), 카테고리 재분류(50개 카테고리로 세분화) 등 기술적 협의 진행 예정

* 금년 말 협상 타결을 목표로, 6~7월간(6.15~19, 7.27~31) 상품 범위(scope) 검토를 위한 기술 세션 개최 후 9월부터 최종 협상 예정